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4.5~2017.4.1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당신은무엇을먹고사십니까	선재 스님	불광출판사
2	성철평전	김택근	모과나무
3	너는이미기적이다	틱낫한/이현주	불광출판사
4	수구즉득다라니	석법성	운주사
5	정신과 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전현수	불광출판사
6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7	붓다컬러링(손끝으로 만드는 마음속평화)	매튜스미스	(주)조계종출판사
8	사찰불화명작강의	강소연	불광출판사
9	대방광불화엄경강설52(여래출현품3)	무비	담앤북스
10	내안에삶의나침반이있다	법상/용정운	아름다운인연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깨달음이란?… 맹목적 버릇을 멈추는 것

깨달음의 재발견

우오가와 유지 지음 | 이광준 옮김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 5천원



우리가 명상과 불교를 수행하는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

착하게 살기 위해서, 혹은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인간으로서 바르게 사는 길을 찾기 위해서 등등.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이러한 답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불교의 개조(開祖)인 고따마 붓다에게 불교 수행은 그런 게 아니었다. 붓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수행 목적은 '해탈(解脫)'이며 또한 그것을 달성한 경지인 '열반(涅槃)'이었다. 통상 '깨달음'이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유달리 명상 '효과'들이 강조되면서 불교 수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달성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담론은 먼 나라 이야기다. 심지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불교는 자기계발이나 처세에 동원된다.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 본래 목적인 깨달음이라는 목표와는 분명 궤를 달리한다. 그러나 저자가 말하듯 애당초 '과학성'과 '합리성'을 바란다면 불교 관련 책보다는 자연과학 책을 읽게 되고, '처세술'을 알고 싶다면 2,500년 전의 인도인이 현대인 상황에 딱 맞게 말하는 자기계발서를 읽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는 빨리어 경전과 아함경전 등 비교적 초기에 쓰였다고 전해진 경전들서 그 깨달음의 전제와 과정 그리고 그 경지에 대한 단초들을 찾아내고, 또한 현대 실천자들의 증언부터 유추해 그 대강을 찾아간다. 그렇다면 저자가 말하는 깨달음은 무엇일까? 저자는 한마디로 "중생이 자신의 버릇 때문에 맹목적으로 계속하는 행위를 끊는 것이다"고 정의한다.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마음에 번뇌가 있어서 더렵혀진 상태를 '유루(有漏)'라 불렀는데 이런 루의 영향 아래 있는 중생의 행동 양식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쁜 버릇'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습관적이고 맹목적인 행위로서 '이건 나쁜 짓이다. 무의미한 일이다'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정신이 들면 어느새 또 저지르고 마는 행위이다. 불교에서 '수행'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머리로는 제대로 이치를 깨달았다고 해도 습관적인 행위를 끊을 수가 없는 한 달성됐다고 말할 수 없는 게 '깨달음'이라는 것의 성질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깨달음'을 지향한다는 것을 현상의 측면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맹목적이고 습관적인 행위, 즉 버릇(漏)과 비슷한 것, 번뇌를 영원히 정지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단히 설명하면 '중생이 버릇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행위를 계속하는 상태'가 '미혹(迷)'이고, '이것이 끊어진 상태'가 '깨달음'이다. 특히 남방불교서 강조하고, 최근 대승의 승려들도 채용해서 흔히 사용하는 '마음챙김(sati)'이 이를 위한 실천이다.

깨달음, 일반인 눈높이서 설명
경전서 깨달음 경지 단초 찾아

그렇다면 왜 일본서 이 책 때문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을까? 이 책은 깨달음의 정의와 깨달음에 도달했을 때의 상태를 일반인 눈높이서 하나하나 설명한다. 특히 깨달음을 설명하기 위해 무상, 고, 무아라는 테마서 시작해 연기까지 이어지는 저자의 설명은 이의가 있을 수 없어 보인다. 그 명징한 설명으로 이 책은 일본 불교학계서 일가를 이뤘다는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추천사를 받았다. 하지만 깨달음에 대해 다양한 견지를 갖는 일본 학계는 들썩였다. 심지어 논쟁은 물론 이 책을 비판하는 단행본까지 쏟아졌다. 저자가 던진 도발적인 질문 혹은 신선한 논쟁 중에 수행자와 학계가 가장 불편해 했던 것은 다음과 같은 대목이다.

△붓다는 깨달은 다음에 왜 죽지 않았나?=이 도발적 질문을 던진 후 저자는 "진리를 체득한 다음에 하는 모든 '행위'는 순수한 '유희'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붓다의 이타행은 '선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자는 부처님 말씀은 오히려 사회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노동과 생식을 부정하고, 애초부터 그 전제가 되는 '인간'이라든가 '올바르다' 든가 하는 이야기들을 파괴하는 작용을 한다고 봤다. 그래서 불교는 반선악(反善惡)이 아니라 탈선악(脫善惡)이라는 주장이다. 〈제 3장 탈선악의 윤리〉

반면 불교를 말하면서 아직도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논증, 무아이기 때문에 윤회한다는 논지와 증명은 불교를 더 불교답게 했다는 높은 평가를 일본 최고의 불교 학자들로부터 받았다. 물론 아직도 윤회를 부정하는 일부 학자들과 윤회의 주체가 없을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비판거리가 되기도 했다.

저자는 현재 일본 불교학계서 가장 주목 받는 '젊은 피'다. 아직 마흔도 안 된 젊은 나이라는 것 외에도 학계와 수행자 사이에 여전히 만연한 윤회 부정과 윤회의 주체를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 과감히 지적한다. 이 비판에는 일본 불교학계의 거장인 나카무라 하지메(비아설)나 와츠지 테츠로(윤회와 불교 세계관의 분리) 등도 포함돼 있다.

저자는 이런 거장들의 불교 논지 전개가 경전서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 솎아 내거나 때론 '절대로 얼버무리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애써 무시하는 태도라도 통렬히 비판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명상으로 인격이 좋아지지 않는다'거나 '불교는 착하게 살기 위한 가르침이 아니다' '붓다가 깨달은 후 바로 열반에 들지 않고 법을 설했던 것은 유희다'라는 등의 도발적인 주장과 논지가 합쳐져 그 '젊은 피'는 논쟁의 한가운데 서고 말았다. 하지만 '깨달음'이라는 불교의 애초 목적을 찾아가는 그의 여정은 어쩌면 '나의 가르침은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한 붓다의 태도와 일맥상통하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우오가와 유지**는?
도쿄대 문학부서 서양철학을 전공했고 같은 대학서 인도철학과 불교학을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마쳤다. 2009년 미얀마로 건너가 현재까지 테라와다 불교의 교리를 배우고 수행하면서 불교, 가치, 자유 등을 주제로 한 연구를 진행한다. 2015년 첫 선을 보인 이 책(원제 〈불교 사상의 제로포인트〉)은 일본서 깨달음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촉발시키며 단숨에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주어진 시간에 주저 말고 흠뻑 사랑하자"

우리가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일초 스님 지음 | 민족사 펴냄 | 1만 4500원



동학사 승가대학서 40여 년 동안 후학을 양성하는 일초 스님과 학인들이 주고받은 편지글을 모은 책이다. 편지에는 스님들의 일상뿐만 아니라 사유체계, 가치관, 숨기고 싶은 감정과 인간관계, 그 시대의 사회상까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게다가 이 책은 동학사 일초 스님과 비구니 스님들의 편지라는 데서도 알 수 있듯 수행의 길을 걷는 비구니 스님들의 편지이다. 그것만으로도 책장을 들추기 전부터 가슴 설렌다. 첫 줄을 읽는 그 순간 마음은 초록색 힐링이 될 것 같다.

책 속에 소개된 편지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고, 사유하고, 진리의 길을 걷는 비구니 스님들이 그 마음을 어디로 향하는지,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주 생생히 묘사됐다. 비구니스님들은 서로 어떤 내용의 편지를 주고 받을까?

〈우리가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란 이 책 제목은 일초 스님의 시, '내가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서 비롯됐다. 74세에 쓴 이 시에서 스님은 세상 모든 것이 사랑임을, 사랑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역설한다.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가 넘칠 때 남을 칭찬하고 기뻐하는 소리를 더 많이 해서 기쁨이 가득한 세상을 발원해야 합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질시보다는 연민의 정을 가진 보살의 마음이 그리운 때입니다. 나에게 힘이 있다면 더러운 오물이라도 묻어주고 덮어주는 흙의 힘으로 다시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 또 다른 것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늘 수 있도록 수행자가 앞장서서 기도 발원하고 보살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일초 스님은 제자스님들로부터 연하장을 받은 새해 새아침에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로 답장해 주었다. 잘못한 사람에게 연민의 정을 가질 수 있는 보살의 마음을 일깨워주고 수행자가 앞장서서 자비행의 릴레이를 하라고 답장해 주는 모습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된다.

또한 1988년 어느 날 한 학인 스님이 보낸 편지에서는 그 무렵 불교계에 발생한 불미스런 일을 떠올리게 한다. '봉은사 사태'가 신도뿐만 아니라 스님들에게도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알게 되면서 숙연해지기까지 한다.

"이러한 설움의 빛깔들이 밀려올 때면 그래도 희망처럼 솟아오르는 스님을 떠올립니다. 어떠한 말로도 그릴 수 없는 스님의 영혼의 강기슭에 묵묵히 침묵보다 진하게 손 흔들고 계신 스님을 바라봅니다. 영혼의 몸살을 앓는 우리들에게 슬픔을 이겨낸 뒤 더욱 아름답고 지고한 순정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시대의 스님의 삶의 지표 속에서 용기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면서 일초 스님으로부터 희망을 찾고 새로운 용기를 발견했다는 학인 스님의 편지를 대하면서 독자들 또한 그동안의 가슴앓이를 속 시원히 풀어낸다.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는 우리나라 비구니 강백 중 으뜸으로 손꼽히는 일초 스님의 삶과 고뇌를 진솔하게 담은 편지와 일초 스님의 시가 들었다. 2장에는 도반인 서림 스님의 구체적인 일상생활, 삶의 민낯을 생생하게 드러낸 편지, 3장에는 일초 스님께 지도받은 수많은 제자들의 각양각색의 사연을 품고 있는 편지, 4장에는 일초 스님께 위로받고 싶은 세상 사람들의 고달픈 삶의 애환을 담고 있는 편지가 담겨 있다.

질병, 늙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괴로움 등 삶에 대해 고민하며 서로 마음을 나누는 비구니 스님들의 편지를 읽다보면 스님들도 우리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근본 고통 속에 흔들리는 존재임을 알게 된다.

아울러 신비하게, 멀게만 느껴졌던 스님들과 한결 가까워진 자신을 느끼게 된다. 스님들도 우리처럼 세상사에 대한 걱정을 하고, 감기, 관절염 따위의 갖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보고 싶어 하고,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괴로움에 번민하는 등 삶의 굽이굽이마다 고민하는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을 엿보면서 마음 깊이 공감하게 된다.

김주일 기자

책속의 밑줄 긋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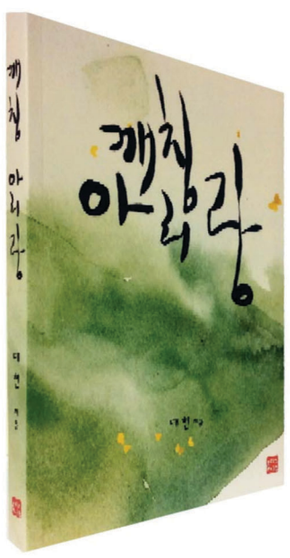
▲"설움의 빛깔들이 밀려올 때면 그래도 희망처럼 솟아오르는 스님을 떠올립니다. 어떠한 말로도 그릴 수 없는 스님의 영혼의 강기슭에 묵묵히 침묵보다 진하게 손 흔들고 계신 스님을 바라봅니다. 영혼의 몸살을 앓는 우리들에게 슬픔을 이겨낸 뒤 더욱 아름답고 지고한 순정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시대의 스님의 삶의 지표 속에서 용기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진정한 출가는 어떤 것인가?'하는 생각이 이제야 솟구치고 있으니 가끔은 저는 세상을 거꾸로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는 이전에 모두 끝내고 왔어야 하는데, 그 무거운 무게의 짐을 이곳까지 떠메고 왔으니 왜 그렇게 사람이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릇은 작은데 너무 많은 걸 담으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름다운 계절, 봄입니다. 왜 이렇게 봄은 해가 갈수록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지요. 지금은 붉은 영산홍·철쭉의 꽃잔치가 자못 흥겹고, 파릇한 나뭇잎들의 아름다움도 견줄 수 없을 만큼 황홀합니다.

산하대지가 모여 축제를 합니다. 그 중에 오직 사람만이 축제에 내 놓을 것 없이 남의 축제에 기웃거리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 몇 자 적어보았어요."

피가 돌고 맥박이 뛰는 살아 있는 깨달음, "아리랑" 속에 그 길이 있습니다



깨침 아리랑

* 대현 지음 / 264쪽 / 값 15,000원

"나"를 떠나서는 십리도 못 가 발병 나리니
여보게들, 제발 제발
이 "나"를 속살 깊이 연구하여 보세나.
길은 안으로 안으로 놓여져 있다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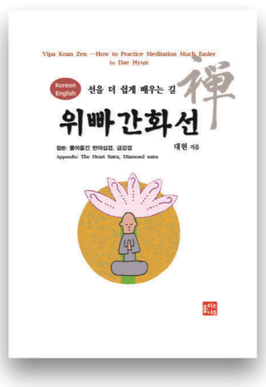
깨침 아리랑

우리 민족은 지구촌 어느 곳에 둥지를 틀고 살아가든지 아리랑 노래만 나오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고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리랑에는 우리 민족만의 고유독특한 한(恨)이 서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아리랑 가사 속에 스며 있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 민족의 한과 정서가 깃든 아리랑의 유래를 알아보는 일은, 한맺힌 아리랑 노래를 "깨침의 노래"로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자 대현 스님

1968년 백양사로 출가, 강진 백련사에서 南山正日 선사를 은사로 득도하셨다. 1975년 인천 용화사 법보선원에서 안거 후 제방선원에서 50안거를 성만하신 스님은, 간화선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지름길인 것이 분명하지만, 깎아지른 바위산을 단박에 오르는 것과도 같아서 상근기에 적합한 수행법이라는 생각을 품고 계시던 중 '위빠사나'를 만난 이후 이를 간화선에 접목, 수행의 바르고 빠른 길로서 "위빠간화선"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지금은 지리산 정각사 죽림선원에서 정진중이시다.
저서로는 『선승의 길』, 『선을 배우는 길』, 『위빠간화선』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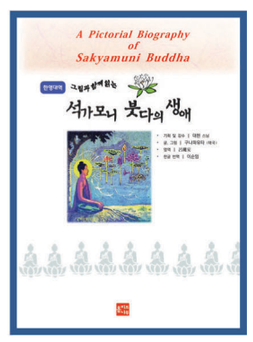


* 대현 지음 / 160쪽 / 값 12,000원

위빠간화선

위빠사나와 간화선을 하나로 통합한 "선수행의 길라잡이"

늘 깨어 있어 알아차리면서 "이 뭣고?" 하고 화두를 챙기는 것이, 위빠사나 수행과 간화선 수행의 장점을 잘 살린 "위빠간화선"이다. 한 공간에 어둠과 빛이 공존하지 못하듯, 처음 위빠간화선을 시작하는 사람은 들떠 요동치는 업식을 잠재우는 시간이 길지만, 수행을 열심히 하다보면 위빠사나의 알아차림이 짧아지고 화두 드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다보면 화두 의단이 독로하여 앉고 서고 가고 오고 말할 때 한결같게 된다.



한영대역판
그림과 함께 읽는
석가모니 붓다의 생애

* 기획 및 감수 ‖ 대현 스님
* 240쪽 / 컬러 / 값 12,000원

가장 행복한 나눔—
"부처님의 생애"를 선물하는 일입니다

천지를 운행하는 거대한 섭리를 향해 던진 큰 물음표가 있었기에, 그리고 해답을 얻고야 말겠다는 구도에의 열정이 있었기에 부처님은 세상의 그 누구도 얻지 못한 큰 깨달음으로 세상에 빛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 안에서 진정한 쉴 곳을 찾았고, 구원을 얻었으며, 삶과 자연과 자기 자신의 가치에 눈을 떴습니다. 부처님의 생애가 주는 감동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진정으로 먹어야 할 영적인 양식이 아닐까요! —대현 스님 ("선승의 길"의 저자)

석탄일 법보시용
산청 정각사에서 정가의 50%를 지원합니다
문의 010-9772-4588
055) 972-1109

올리브나무 전화 070-8274-1226, 010-7755-2261 팩스 031-629-6983 이메일 yoyoyi91@naver.com